



꾸지뽕나무로 제2의 망선(?)을 꿈꾸는,

태안 만대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사실 작년 12월초 까지만 해도 마을기업이 뭘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 체험마을연합회가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우리 마을에 자생하는 꾸지나무가 바로 ‘꾸지뽕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한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마을기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태안 만대마을 ‘꾸지나무골영농조합법인’
김진현 대표(60)의 말이다.

“만대어촌체험마을과 꾸지나무골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등이 운영주체를 맡고 있죠. 마을기업의 사업 일환으로 꾸지뽕나무를 식재한 재배포가 있고, 꾸지뽕잎차 만들기, 꾸지뽕 천연염색, 꾸지뽕 비누 만들기, 꾸지뽕 막걸리 만들기 등 체험거리와 웰빙먹거리(꾸지뽕칼국수, 꾸지뽕백숙, 꾸지뽕 삼겹살 등)를 개발하여 전문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 솔향기길 제2코스〉



〈태안반도 최북단 만대항〉

김 대표의 포부만큼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 처음 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설명을 좋다고는 하면서 정착 함께 행동에 옮기기는 무리였다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은 조합원이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으니 2배(?) 이상 성과가 있다고 해야 할까?

이 영농조합법인이 위치한 ‘만대마을’은 현재 총75가구 194명이 살고 있으며 태안반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마을 앞 가로림만 갯벌의 생굴과 바지락은 품질이 신선하고 우수하며, 만대항에서는 사시사철 싱싱한 물고기와 꽃게 등이 잡힌다.



〈태안 가로림만 갯벌체험〉

그중 꾸지나무골은 옛날부터 꾸지뽕나무의 자생지여서 붙여졌다고 전해지며, 지금은 꾸지나무골해수욕장으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고, 오래 길인 태안 솔향기길 2코스 출발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필자가 이 원고를 쓰면서도 계속 ‘뽕뽕~’거리며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걸 보니 분명 행복한(?) 마을임에 틀림없다.

역시나 푸근한 인상의 인심 좋게 생기신 김진현 대표는 “본래 여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하다가 2008년도에 귀향을 했습니다. 농사는 잘 할 자신이 없던 터에 만대어촌체험마을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취약 계층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한계를 느껴 이 마을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꾸지나무골영농조합법인 김진현 대표〉



〈독살체험중인 마을 방문객〉

필자가 김 대표를 만난 이날은 꾸지나무골해수욕장에 마련된 ‘독살체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른 잘 나간다는 체험마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독살체험, 염전체험, 망둥어잡이체험, 바지락개기체험 등에 전국에서 연간 8,000여명이 찾는 체험마을을 간판을 달만한 곳이었다.

어찌되었든 이 체험사업도 그만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분업화가 필요한 상황이 온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김 대표는 이제 체험사업은 다른 마을주민에게 인계하고 ‘마을기업’에 집중할 계획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꾸지나무골영농조합법인’의 시작인 것이다. 올 초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아 꾸지뽕나무 묘목을 1,100본 정도 심어 놔는데 두달 동안 계속된 가뭄 때문에 20% 정도는 말라 죽었지만 나머지는 지금은 잘 자라고 있었다.

이번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원사업비 4,500만원, 자부담 600만원으로 시작, 앞으로 만대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체험거리 개발과 기능성 식품을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먹거리 전문식당을 열겠다는 포부다. 그래서 자칫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체험마을에 문화와 웰빙을 더해 활력있는 꾸지나무골 꾸지뽕마을로 만들겠다는 거란다.

김 대표는 “올해 가뭄으로 꾸지뽕나무 성장이 지연되어 원료인

꾸지뽕잎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10월부터는 이를 활용한 체험거리와 꾸지뽕잎차도 만들고 꾸지뽕나무 작목반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은 주민들이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1~2년은 더 노력해야 자리를 잡을 듯합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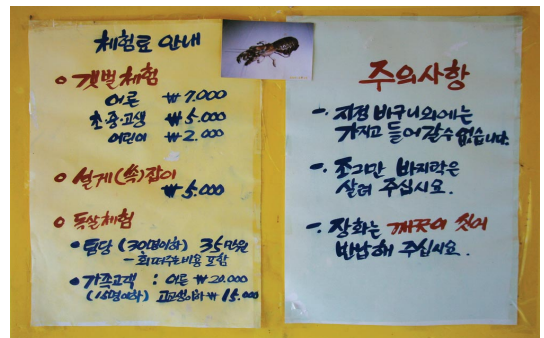
〈꾸지뽕나무 묘목심기〉



〈올 9월 꾸지뽕나무 모습〉



〈만대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각종 체험별 메뉴판〉

체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꾸지뽕나무 재배포에서 잎따기, 그리고 직접 가마솥에서 건조시켜 잎차를 만들고 꾸지뽕잎을 갈아 혼합한 칼국수나 수제비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직접 시식까지 코스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꾸지뽕 천연염색, 꾸지뽕 천연비누, 꾸지뽕 술담기, 꾸지뽕 효소제만들기 등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꾸지뽕나무는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을 이용하여 기능성식품인 액상차도, 잎차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방문객이나 통신판매, 특판 및 마을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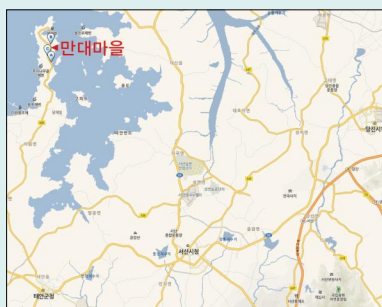
“사실, 체험마을 운영하면서 장단기 계획이 수립된 마을을 보면 부러워만 했었죠. 우리 마을도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마을의 발전 목표도 달성 가능한 것부터 세워볼 생각입니다. 문제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아 문제죠.”

그러면서 김 대표는 “마을기업이란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에요, 나름 성과를 내야하니까요. 그렇지만 꾸지뽕을 활용한 사업이다 보니 자식농사처럼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

꾸지나무골을 웰빙휴양마을로 탈바꿈시키고 싶은 김 대표의 희망이 어느덧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해본다.

[태안만대마을...]

● 찾아가는 길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갈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서산C로 빠져나와 서산과 태안읍내를 지난 후 이원면 방향으로 우회전해 학암포 방향과 갈라지는 반대쪽으로 가면 내리(만대어촌체험마을) 이정표가 보임

▶ 주소 :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2-6

(T.041-675-0081, 네비게이션 주소검색 추천)

▶ 홈페이지 : <http://vil.seantour.com/Vil/Main.aspx?vno=3406>

● 주변관광지

▶ 꾸지나무골해수욕장

꾸지나무골해수욕장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위치한 길이 0.8km의 아담한 해수욕장. 주변에 펜션이 많아 숙박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태안 솔향길길 제2코스 입구가 해수욕장 바로 뒤에 있어 산책코스로도 제격이다.

또, 해수욕장 좌측에 있는 독살체험장은 만대어촌체험마을에 예약하면 가족·단체로 즐거운 전통방식 고기잡이 체험을 경험할 수 있고, 잡은 물고기는 바로 회로 떠주기 때문에 싱싱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